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글로벌도시로 '한걸음 더'

전주시, 자매도시 민간교류 국제기구 활동·해외인턴십 전주세계문화주간 등 통해 글로벌네트워크 강화 '톡톡'



전주시가 다양한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전주시가 국제우호도시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피렌체한국영화제'에 전주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한식전문가를 파견한 모습.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주시가 선도적이고 전략적인 도시 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다.

시는 △자매(우호)도시 민간교류 △주요 글로벌리더 초청사업 △국제기구 활동 △해외인턴십 파견 △전주세계문화주간 △전주미래도시포럼 등 도시의 정체성과 다양한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교류에 힘쓰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특히 시는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선보이고, 지역 청년과 해외 멘토의 연결, 국내·외 전문가 초청을 통한 글로벌네트워킹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서 지난해 국제우호도시인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피렌체한국영화제'에 전주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한식전문가를 파견,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세계적인 미식도시인 전주를 알렸다.

시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국가를 바꿔 개최하고 있는 '트래디셔널 코리아' 행사 중 한지 관련 행사를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주관하기도 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에서 개최된 '2023 뎃츠 코

리아: 한지'에서 시는 지역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주한지의 쓰임 등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 전주의 전통 문화를 알렸다.

전주를 찾는 해외 유명 인사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매(우호)도시 시장단 등 해외도시 대표단뿐만 아니라, 한·중·일 청년 대사단, 미국 글로벌기업 CEO 등 다양한 글로벌 리더와 차세대 리더가 전주를 방문했으며, 최근에는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스티브 바라카이 전주를 찾아 전주 친선대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또한, 시는 일본 가나자와 등 자매도시와 민간단체 교류뿐만 아니라, 각국 대사관과 문화원, 상공회의소, 글로벌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세계문화주

간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거나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국제교류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펼쳐진 '독일문화주간'에는 메르세데스-벤츠, 헨켈코리아, 파버카스텔 등 다양한 글로벌기업이 후원을 자처해 전주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했다.

시는 앞으로도 미국 뉴올리언스와 이탈리아 피렌체, 일본 가나자와, 중국 쑤저우 등 전 세계의 문화도시와 자매(우호)교류를 공고히 하고, UCLG ASPAC 집행부도시로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미디어, 글로벌기업, 주한대사, 문화원장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세계 속에 전주를 알릴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생애사진전

지난 5일 전북도청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김대중 전 대통령 생애사진전'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김 전 대통령의 생애 사진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진전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 김대중 대통령 군산기념사업회 및 책임기운동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전주시, 새해도 '책의 도시' 명성 잇는다

'전주책패' 등 신규 축제로 3대 책문화 축제 완성도 높여 책공20·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으로 동네서점 활로 개척

전주시가 2024년 갑진년 새해도 선도적인 도서관 정책과 책공20 △전주독립출판박람회 △전주독서대전 등 책의 도시 전주의 3대 책문화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독서 문화 확산과 책문화 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먼저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어진 '제2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에는 이수지 작가와 막스 뒤코스 작가, 이시카와 에리코 작가 등 세계 최고 작가들의 그림책 원화가 전시되

고, 그림책 관련 강연과 체험, 북마켓 등이 운영되면서 약 3만4,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첫선을 보인 전주 독립출판박람회인 '2023 전주책패'의 경우 독립출판물과 아트북 작가의 신작이 홍보·판매돼 서울과 부산, 광주, 구미 등 독립출판물에 관심 있는 전국 각지의 관람객이 몰려오기도 했다.

여기에 6회째를 맞은 '전주독서대전'은 총 118개 프로그램에 약 4만 7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책'을 주제로 전주 시민과 책 여행객, 교육계, 언론계, 동네서점, 작가, 출판사 등 모든 독서생태계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대표 독서문화축제를 입증했다.

시는 올해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을 통해 그림책 작가와 활동가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등 그림책 산업 전반을

더욱 키워나가는 한편, 전주 페스타 등 전주 대표축제와 연계해 책 축제를 더욱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지난 1년간 동네서점 활성화와 시민 독서문화 주변 확대를 위해 전주책사랑포럼 '책공20'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펼쳤다.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도서관 여행'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약 11개월 동안 1500여 명의 여행객이 참여하며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전주의 이색 도서관을 알렸다.

책의 도시답게 전주 곳곳의 도서관도 쾌적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작년 5월에는 전주혁신도시에 도서관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인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서신·완산·족구동도서관의 경우 리모델링을 거쳐 올해 재개관이 예정돼 있다. 시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도 작은도서관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색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 부안 내소사 동종, 국가지정 '국보' 됐다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승격 지정... 9일 내소사서 지정식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부안 내소사 동종이 지난해 12월 26일 '국보'로 최종 승격 지정돼(문화재청 고시 제2023-168호) 오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소사에서 '국보' 지정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청은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대형 종

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라고 밝혔다.

이 동종을 제작한 한중서는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민간 기술자인 사장(私匠)에서 시작해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관청 소속의 관장(官匠)이 되



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 동종은 양식, 의장, 주조 등에서 한국법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종기와 이안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 모든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무주군의회의 또 다른 이름

# 희망의회!

새로운 변화, 함께 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의회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